




| | | |
|--|---|--|
| 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| <h1>보도자료</h1> <p>“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”</p> |  페이스북 @kcanews |
| | |  인스타그램 @kca.go.kr |
| 이 자료는 8월 17일(수) 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| | |
| 배포일 | 2022년 8월 16일(화) (총 7쪽) | 담당부서 서울지원 의료팀 |
| | | 담당자 권선화 팀 장(02-3460-3121) 오지희 과 장(02-3460-3127) |

백내장 수술 피해 소비자의 58.8%는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해

- 진료비와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, 수술 결정은 신중히 -

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으로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매년 국내 주요 수술 1위*를 차지하고 있다.

* '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 : ('16년) 518,663건 → ('20년) 702,621건으로 35.5% 증가(출처:국민건강보험공단)

최근 3년간(2019년~2022년 6월) 한국소비자원(원장 장덕진)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51건*을 분석한 결과, 수술 후 시력 저하, 빛 번짐 및 눈부심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,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·후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58.8%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: ('19년) 15건 → ('20년) 12건 → ('21년) 14건 → ('22년 6월) 10건

□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호소 가장 많아

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51건 중,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.1%(22건)로 가장 많았고,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은 각 23.5%(12건), 안내염 발생 19.6%(10건)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.

[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호소 현황(복수응답)]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| 시력저하 | 실명 | 빛번짐, 눈부심 | 안내염 | 망막질환 | 후낭파열 | 후발백내장 | 섬모체 소대 해리 | 기타*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건수 (비율) | 22(43.1) | 12(23.5) | 12(23.5) | 10(19.6) | 8(15.7) | 5(9.8) | 5(9.8) | 5(9.8) | 8(15.7) |

* 인공수정체 탈구, 황반질환, 복시, 비문증, 안구통증 등

□ 58.8%는 수술 전·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

피해구제 신청건의 58.8%(30건)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 (부동문자) 동의서이거나,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,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,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25.5%(13건)로 확인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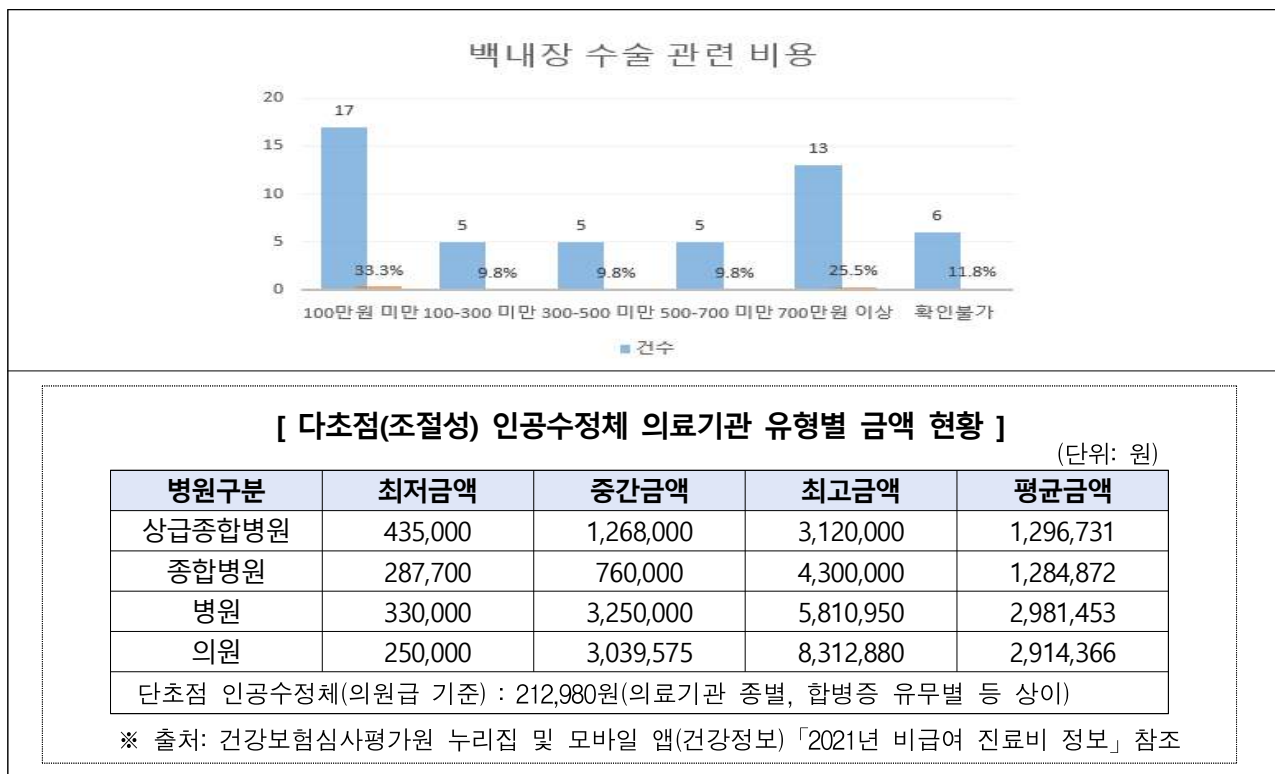
□ '다초점인공수정체' 수술 관련 비용, 최저가와 최고가 4배 가량 차이나

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되는데, '단초점 인공수정체*'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,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'다초점인공수정체**'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.

인공수정체 종류가 확인된 46건을 살펴본 결과, '단초점인공수정체'와 '다초점 인공수정체'를 이용한 수술은 각 23건으로 동일했다. 다만, '단초점인공수정체' 수술 관련 비용은 정액으로 약 20여만 원인 반면 비급여 항목인 '다초점인공수정체'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 원부터 최고 1,2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.

* 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

** 원거리, 근거리,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인공수정체



□ 수술 전 수술 비용과 부작용 등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

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▲수술 전 정확한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,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, ▲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 시 장점에만 현혹되지 말고 장단점과 수술비용(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에서 확인 가능)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며, ▲수술 전·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.

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www.kca.go.kr



[붙임]

1 백내장 수술 관련 접수 현황

- (상담·피해구제 접수 현황)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530건, 피해구제 51건 접수
 - 최근 3년간(2019년~2022년 6월)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30건이고,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1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.

[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및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]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6월 | 합계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피해구제 | 15(29.4) | 12(23.5) | 14(27.5) | 10(19.6) | 51(100.0) |
| 소비자상담 | 141(26.6) | 141(26.6) | 177(33.4) | 71(13.4) | 530(100.0) |

* 1372소비자상담센터 :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, 한국소비자원,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(발신자부담)

- (성별·연령별 현황) 남녀 비율 비슷하고, 50대 이상이 대부분
 -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의 성별 현황은 남성 52.9%(27건), 여성 47.1%(24건)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.
 - 연령별로는 70대 27.5%(14건), 60대 25.5%(13건), 50대 23.5%(12건), 80대 13.7%(7건) 순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음.

[성별 및 연령별 현황]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| 20-29세 | 40-49세 | 50-59세 | 60-69세 | 70-79세 | 80세 이상 | 합계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남성 | - | 2 | 5 | 10 | 8 | 2 | 27(52.9) |
| 여성 | 1 | 2 | 7 | 3 | 6 | 5 | 24(47.1) |
| 합계(비율) | 1(2.0) | 4(7.8) | 12(23.5) | 13(25.5) | 14(27.5) | 7(13.7) | 51(100) |

- (의료기관 소재지별)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대부분
 - 피해구제가 신청된 의료기관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 31.4%(16건), 경기 15.7%(8건), 인천 9.8%(5건), 경상 11.8%(6건)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함.

[의료기관 소재지별 현황]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| 서울 | 경기 | 인천 | 경상 | 강원 | 부산 | 제주 | 울산 | 기타* | 합계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건수 (비율) | 16(31.4) | 8(15.7) | 5(9.8) | 6(11.8) | 4(7.8) | 3(5.9) | 3(5.9) | 2(3.9) | 4(8) | 51(100.0) |

* 광주.충북.대구.대전 각 1건

□ (의료기관 유형별 현황) 의원급 의료기관이 70.6%로 확인

- 의료기관의 유형별 현황은 의원급이 70.6%(36건)로 대다수를 차지했고, 이어 병원급 11.8%(6건), 종합병원급 9.8%(5건), 상급종합병원급 7.8%(4건) 순임.

[의료기관 유형별 현황]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| 의원 | 병원 | 종합병원 | 상급종합병원 | 합계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건수(비율) | 36(70.6) | 6(11.8) | 5(9.8) | 4(7.8) | 51(100.0) |

□ (부작용 발생 현황) 시력 저하, 빛 번짐 및 눈부심 등을 주로 호소

-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시력 저하 43.1%(22건), 실명 23.5%(12건), 빛 번짐 및 눈부심 23.5%(12건), 안내염 19.6%(10건)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남.

[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호소 현황(복수응답)]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| 시력저하 | 실명 | 빛번짐 ·눈부심 | 안내염 | 망막질환 | 후낭파열 | 후발 백내장 | 섬모체 소대 해리 | 기타*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건수 (비율) | 22(43.1) | 12(23.5) | 12(23.5) | 10(19.6) | 8(15.7) | 5(9.8) | 5(9.8) | 5(9.8) | 8(15.7) |

* 인공수정체 탈구, 황반질환, 복시,비문증,안구통증 등

□ (인공수정체 종류별) 다초점 및 단초점인공수정체 선택 비율은 거의 비슷

-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된 인공수정체 종류로는 단초점인공수정체가 45.1%(23건), 다초점인공수정체가 45.1%(23건)로 확인됨.

[인공수정체 종류별 현황]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| 단초점 인공수정체 | 다초점 인공수정체 | 확인불가* | 합계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건수(비율) | 23(45.1) | 23(45.1) | 5(9.8) | 51(100.0) |

* 인공수정체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음.

□ (수술 관련 비용) 18만 원대부터 1,200만 원 고액까지

○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을 위해 지불한 진료비는 18만 원대부터 1,2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.

- 단초점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포괄수과제 항목으로 본인부담금이 20여만 원 내외로 정액*임.

* 2021년 기준 의원급 212,980원(단안 기준)으로 의료기관 유형별, 수술별, 합병증 유무별, 입원 기간별 상이(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)

- 그러나,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비용 책정에 제한이 없는 비급여 항목으로 최저 300만 원부터 최고 1,200만 원까지 나타남.

[백내장 수술 관련 비용 현황(양안 기준)]

(단위 : 건, %)

| 구분 | 100만원 미만 | 300만원 미만 | 500만원 미만 | 700만원 미만 | 700만원 이상 | 확인 불가 | 합계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건수 (비율) | 17(33.3%) | 5(9.8%) | 5(9.8%) | 5(9.8) | 13(25.5) | 6(11.8) | 51(100.0) |

□ 백내장 수술 전·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는 58.8%

○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의사의 설명의무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39.2%(20건),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책임이 모두 인정된 경우는 19.6%(10건), 주의의무 책임이 인정된 경우도 5.9%(3건)로 확인됨.

[처리결과별 현황]

(단위 :건, %)

| 구분 | 주의의무 책임 | 주의 및 설명의무 책임 | 설명의무 책임 | 정보제공 | 기타* | 합계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건수(비율) | 3(5.9) | 10(19.6) | 20(39.2) | 10(19.6) | 8(15.7) | 51(100.0) |

* 취하·중지 등

【사례1】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, 빛 번짐 발생

A씨(여, 60대)는 2021. 6. 7., 6. 14.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양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시력 저하, 빛 번짐, 난시 증상이 발생하여 난시교정용 안경을 착용하게 됨.

【사례2】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, 빛 번짐으로 시력교정 수술 권유

B씨(여, 50대)는 2021. 10. 29.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양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, 후발 백내장이 발생하여 2022. 1. 7. 야그레이저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 저하, 빛 번짐이 지속됨. 이에 같은 해 3. 10. 신청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진한 결과 시력교정 수술을 권유받음.

【사례3】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

C씨(여, 40대)는 2021. 2. 10.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좌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단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안내염이 발생해 2021. 3. 2. 신청외 의료기관으로 전원 되어 치료를 받음.

【사례4】 백내장 수술 직후 후낭파열 및 안압상승으로 시력저하

D씨(남, 50대)는 2018. 9. 4.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양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좌안 후낭파열 및 안압이 상승함. 같은 해 9. 11. 신청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, 좌안은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고 우안은 인공수정체의 축이 상측으로 틀어져 초점이 맞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.

【사례5】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으로 시각장애

E씨(남, 70대)는 2019. 9. 17.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좌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단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좌안 안내염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9. 20. 신청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, 2020. 3. 11. 좌안 광각유 시각장애가 진단된 상태임.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지도·교육 등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설명의무 책임이 인정됨.

□ **진단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의 필요성을 이해한다.**

- 충분한 검사를 통해 현재의 눈 상태와 백내장 진행 정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한다.
- 당뇨, 고혈압 등 기저질환 및 현재 복용 중인 약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린다.

□ **수술 효과와 부작용, 장단점, 비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한다.**

- 수술의 기대효과와 한계, 발생 가능한 부작용, 사용하려는 인공수정체의 종류와 장단점 및 수술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다.

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
 ⇨ 「진료비」 ⇨ 「비급여진료비정보」 ⇨ 「기관별 현황정보」 ⇨ 「비급여진료비 항목명」
 '조절성 인공수정체' 입력 후 검색

- 필요 시 2~3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위 사항에 대해 중복 확인하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한다.

□ **수술 전·후 의사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른다.**

- 수술 전·후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르고, 시력 저하, 안구 통증 등 눈의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다.

※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'1372소비자상담센터(국번없이 1372, www.ccn.go.kr)' 또는 '소비자 24(모바일앱, www.consumer.go.kr)'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.